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이 바라본 한미 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한미FTA 발효 5년, 양국의 교역추이 / 2

- | | |
|---|-------------------------|
| 2 | 1. 한미FTA 주요내용 |
| 3 | 2. 발효 전후, 수출입·서비스 수지 추이 |
| 6 | 3. 발효 전후, 10대 품목 추이 |

II. 한미FTA에 대한 美언론, 협단체, 언론 반응 / 8

III. 美바이어·美수출기업 한미FTA 활용대표사례 / 10

[별첨] 1. 美바이어 한미FTA 활용사례 / 13

2. 美수출기업 한미FTA 활용사례 / 31

요 약

□ 한미FTA 발효 5주년, 수출입·서비스수지 측면에서 양국 호혜효과 확인

- '06년 협상개시, 8차례 공식협상 후 '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5년차를 맞이함
- 한국의 대미수출, 무역수지는 '1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주춤한 상황
- 미국의 대한수출은 한국 총 수입액의 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 대비 낮은 비율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FTA를 통한 완충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 폭은 발효 후 지속적으로 증가 중

□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미국 내 다수 의견 존재

- USITC는 한미FTA 체결로 美경제,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되었다고 발표
- 美농림부는 한미FTA 발효 후 美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
- 美상공회의소는 발효 후, 대한수출품이 95% 비관세 혜택을 받음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 진출 용이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

□ 美바이어, 美수출기업은 한미FTA 체결로 가격경쟁력 강화, 제도선진화 이점을 통해 수익성 확대, 제품선 다변화, 거점운영 등으로 활용

- 美바이어는 한미FTA를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對韓수입개시, 수요의 증가, 고품질 제품 제공,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를 거둠
- 美수출기업은 한미FTA를 통해 新수요창출, 전략시장으로서 한국을 활용,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보장 등의 효과를 거둠
- 美기업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품목 스펙트럼을 확대·현지화 할 것을 주문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를 건의함

I 한미FTA 발효 5년, 양국의 교역추이

1 한미FTA 주요내용

- (개요) 한미FTA는 '03년 'FTA 추진 로드맵*'의 일환으로 '06년 협상개시를 선언 8차례 공식협상 후 '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17년 1월 5년차를 맞이함
 - * FTA 추진로드맵은 중장기적으로 미국·EU·중국 등 거대·선진경제권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FTA 후발주자로서 캐치업을 위한 동시다발적인 협상 추진 전략을 담음
- (의의) 한미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체결되었으며,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한 계기가 됨
 - 상품, 서비스·투자 뿐 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지재권, 정부조달을 포함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상품(공산품과 임·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
- 협정주요내용
 - (상품) 양국 모두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관세, 비선형 관세철폐 등을 도입하여 민감성 확보
 - (공산품) 대부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도록 합의
 - * 韓측: 95.5%, 美측: 96.9% (수입액 기준)
 - (자동차) 승용차, 전기자동차는 양국 모두 4년 후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은 즉시철폐
 - (농산물) 韓측 55.3%, 美측 82.0%의 품목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수입액 기준)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농산물 셰이프가드 적용 등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서비스·투자) Negative 방식, 최혜국 대우, 자유화 후퇴방지 매커니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을 규정하였으며 방송, 교육, 보건 등 44개 분야에 대한 미래유보를 유지
 - 그 밖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도입

2 | 발효 전후, 수출입 · 서비스 수지 추이

발효 전후, 수출입추이

- (韓측 효과) 한미FTA 발효 전과 후를 비교하여, 對美수출액, 교역규모, 무역수지 측면에서 '1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15, '16년은 감소세로 주춤하고 있음
 - 수출 총액 관점에서 '11년 562억 달러에서 '16년 665억 달러로 103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증감률에 있어서는 '15년 0.6%, '16년 4.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美측 효과) 한미FTA 발효 전과 후를 비교하여, 對美수입 즉 미국의 對韓수출은 여타 국가 대비 낮은 비율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FTA를 통한 완충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총 수입액은 '11년 5,244억 달러에서 '16년 4,062억 달러로 대폭 하락했으나*, 對美수입(對韓수출)은 '11년 446억 달러에서 '16년 432억 달러로 감소폭이 크지 않음
 - * 對세계수입증감률: 23.3%('11)→ -6.9('16), 對美수입증감률 : 10.3%('11)→ -1.8%('16) 변화
 - * 최근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입 감소의 원인은 소비재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이 유가하락 등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산업부, '17년 1월)

<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對美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불)	발효 전		발효 후				차이 ('16-'11)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수출	전 세계	555,214	547,870	559,632	572,665	526,757	495,426	-59,788
	수출증감률(%)	19.0	-1.3	2.1	2.3	-8.0	-5.9	
	對美수출액	56,208	58,525	62,052	70,285	69,832	66,462	10,254
	수출증감률(%)	12.8	4.1	6.0	13.3	-0.6	-4.8	
수입	전 세계	524,413	519,584	515,586	525,515	436,499	406,193	-118,220
	수입증감률(%)	23.3	-0.9	-0.8	1.9	-16.9	-6.9	
	對美수입액	44,569	43,341	41,512	45,283	44,024	43,216	-1,353
	수입증감률(%)	10.3	-2.8	-4.2	9.1	-2.8	-1.8	
교역 규모		100,777	101,866	103,564	115,568	113,856	109,678	8,901
무역수지		11,639	15,184	20,540	25,002	25,808	23,246	11,607

자료: 한국무역협회, '17년 3월 5일 기준

- (수출점유율) 한국 전체 수출액 대비 국가별 비중 추이 측면에서, 미국의 수출점유율은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효 전인 '11년에는 10.1%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6년에는 13.4%로 3.3%p의 수출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점유율) 한국 전체 수입액 대비 국가별 비중에서도, 미국은 5위권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 규모로 수입점유율이 증가(8.5%('11년)→10.6%('16년))
- 한국의 對美수출·수입점유율 증가는 한미FTA를 활용한 양국간 수출확대의 결과임

〈 발효 전후, 국가별 수출점유율 추이 〉

(단위: 백만불)	발효 전	발효 후					차이 (‘16-‘11)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 중국	134,185	134,323	145,869	145,288	137,124	124,433	-9,752
수출점유율	24.2	24.5	26.1	25.4	26.0	25.1	0.9
2. 미국	56,208	58,525	62,052	70,285	69,832	66,462	10,254
수출점유율	10.1	10.7	11.1	12.3	13.3	13.4	3.3
3. 홍콩	30,968	32,606	27,756	27,256	30,418	32,782	1,814
수출점유율	5.6	6.0	5.0	4.8	5.8	6.6	1.0
4. 베트남	13,465	15,946	21,088	22,352	27,771	32,630	19,165
수출점유율	2.4	2.9	3.8	3.9	5.3	6.6	4.2
5. 일본	39,680	38,796	34,662	32,184	25,577	24,355	-15,325
수출점유율	7.1	7.1	6.2	5.6	4.9	4.9	-2.2

자료: 한국무역협회, '17년 3월 5일 기준

주: 국가 순위는 2016년 순위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 발효 전후, 국가별 수입점유율 추이 〉

(단위: 백만불)	발효 전	발효 후					차이 (‘16-‘11)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 중국	86,432	80,785	83,053	90,082	90,250	86,980	548
수입점유율	16.5	15.5	16.1	17.1	20.7	21.4	4.9
2. 일본	68,320	64,363	60,029	53,768	45,854	47,467	-20,853
수입점유율	13.0	12.4	11.6	10.2	10.5	11.7	-1.3
3. 미국	44,569	43,341	41,512	45,283	44,024	43,216	-1,353
수입점유율	8.5	8.3	8.1	8.6	10.1	10.6	2.1
4. 독일	16,963	17,645	19,336	21,299	20,957	18,917	1,954
수입점유율	3.2	3.4	3.8	4.1	4.8	4.7	1.4
5. 대만	14,694	14,012	14,633	15,690	16,654	16,403	1,709
수입점유율	2.8	2.7	2.8	3.0	3.8	4.0	1.2

자료: 한국무역협회, '17년 3월 5일 기준

주: 국가 순위는 2016년 순위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발효 전후, 서비스 수지

- (美측 효과) 한미FTA 발효 전과 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음
 - ('11년) 110억 달러 → ('15년) 141억 달러 흑자를 기록
-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收入)*을 통하여 발효 전 30억 달러에서 '15년 59억 달러로 약 2배의 흑자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 * 서비스거래는 서비스 수입(收入) 및 지급(支給)을 주로 사용하나, 필요시 서비스 수출(輸出) 및 수입(輸入)을 사용하기도 함

< 발효 전후, 對美서비스 수지 추이 >

	(단위: 백만불)	발효 전					차이 (‘15-’11)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서 비 스	가공서비스수지	510	486	397	332	190	-320
	운송수지	-1,437	-267	-181	-54	-633	804
	여행수지	-4,132	-4,590	-4,163	-4,619	-5,337	-1,205
	보험서비스수지	11	-17	-40	39	-28	-39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2,992	-4,866	-5,590	-5,408	-5,885	-2,893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69	-74	19	132	-155	-86
	기타사업서비스수지	-2,777	-2,750	-1,303	-1,232	-2,383	394
	정부서비스수지	547	669	646	474	307	-240
	기타서비스수지	-633	-1,051	-880	-665	-163	470
계	-10,971	-12,460	-11,096	-11,001	-14,087	-3,1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17년 3월 5일 기준

주: 2016년 지역별 국제수지 자료는 '17년 6월 발표 예정으로 추가하지 못함

총론

- 발효 전과 후를 비교하여, 수출입에 있어 양국 모두 한미FTA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측면에서 미국은 서비스 수지 측면에서 FTA 효과가 두드러졌음

* 韓측 무역수지 추이: 116억('11년)→152억('12년)→205억('13년)→250억('14년)→258억('15년)

* 美측 서비스수지 추이: 110억('11년)→125억('12년)→111억('13년)→110억('14년)→141억('15년)

3 발효 전후, 10대 품목 추이

- (韓측) 발효 전후, 대미수출 10대 품목 가운데 승용차, 자동차 부품, 개별소자 반도체, 보조기억장치 등의 품목에서 수출증가세를 보임
 -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발효 전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5, '16년 소폭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 승용차: 기준관세 25%→0%(16년 1월 1일부), 자동차부품: 기준관세 25%→0%(발효 즉시)
 -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 및 美자동차산업 회복세를 기초로 수출 증대 효과를 본 韓측의 FTA수혜품목임
- 발효 전후, 대미수출감소 품목은 무선전화기, 타이어, 집적회로 반도체임

< 발효 전후, 對美수출 10대 품목 추이 >

(단위: 백만불)	발효 전	발효 후					차이 (‘16-‘11)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 승용차	8,632	10,313	12,062	14,612	17,398	15,485	6,853
수출증감률(%)	30.5	19.5	17.0	21.1	19.1	-11.0	
2. 자동차부품	5,018	5,961	6,587	7,050	6,947	6,749	1,731
수출증감률(%)	21.8	18.8	10.5	7.0	-1.5	-2.8	
3. 무선전화기	8,090	4,440	5,881	6,667	6,257	6,467	-1,623
수출증감률(%)	3.0	-45.1	32.5	13.4	-6.1	3.3	
4. 집적회로반도체	2,406	2,093	2,586	2,464	2,481	1,869	-537
수출증감률(%)	-30.1	-13.0	23.6	-4.7	0.7	-24.7	
5. 세트유 및 등유	1,545	1,885	2,553	2,374	2,277	1,824	279
수출증감률(%)	-35.0	22.0	35.4	-7.0	-4.1	-19.9	
6. 타이어	1,493	1,611	1,304	1,277	1,391	1,441	-52
수출증감률(%)	25.6	7.9	-19.1	-2.0	8.9	3.6	
7. 개별소자반도체	176	373	196	298	696	1,362	1,186
수출증감률(%)	78.3	112.6	-47.6	52.2	133.8	95.6	
8. 냉장고	1,005	1,046	1,104	1,063	1,097	1,103	98
수출증감률(%)	15.7	4.1	5.5	-3.7	3.2	0.5	
9. 보조기억장치	273	220	410	536	705	960	687
수출증감률(%)	25.0	-19.5	86.3	30.6	31.6	36.1	
10. 항공기부품	742	742	825	889	933	852	110
수출증감률(%)	-28.8	0.0	11.2	7.7	5.0	-8.6	
전체수출액 대비 비율	52.3	49.0	54.0	53.0	57.5	57.3	

자료: 한국무역협회, '17년 3월 5일, MTI 4단위

주: 품목 순위는 2016년 순위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 (美측) 발효 전후, 對美수입(즉, 미국의 對韓수출) 10대 품목 가운데 항공기부품, 미국산 승용차, 가축육류, LPG, 의약품 등의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임
 - 미국산 승용차의 경우, 발효 전 3.5억 달러에서 발효 후 '16년 기준 17억 달러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4.8배 증가, 역대 최고 對韓수출액을 기록
 - * 승용차: 기준관세 8%→0%(‘16년 1월 1일)
 - LPG의 경우 한미FTA를 통한 미국산 LPG의 가격경쟁력 상승 및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운송기간 감소, 중동산 이외의 도입처 다변화 노력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
- 발효 전후, 對韓수출감소 품목은 집적회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장비, 항공기, 사료 등으로 나타남
 - * 집적회로 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항공기: 기준관세 0%→즉시 철폐로 수혜품목에 불포함

〈 발효 전후, 對美수입 10대 품목 추이 〉

(단위: 백만불)	발효 전	발효 후					차이 (‘16-‘11)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 집적회로반도체	3,838	4,272	3,830	3,816	3,753	3,483	-355
수입증감률(%)	26.5	11.3	-10.3	-0.4	-1.7	-7.2	
2. 항공기부품	1,358	1,401	1,475	1,215	1,302	2,438	1,080
수입증감률(%)	-9.5	3.2	5.3	-17.7	7.2	87.2	
3. 반도체제조용장비	2,279	2,178	1,475	1,969	1,972	2,082	-197
수입증감률(%)	-28.5	-4.4	-32.3	33.5	0.2	5.6	
4. 승용차	347	684	779	911	1,205	1,680	1,333
수입증감률(%)	21.5	97.1	13.9	16.9	32.3	39.5	
5. 가축육류	1,163	914	891	1,168	1,257	1,428	265
수입증감률(%)	91.9	-21.4	-2.4	31.0	7.7	13.6	
6. 항공기	1,499	1,744	1,228	747	1,957	1,367	-132
수입증감률(%)	-15.2	16.3	-29.6	-39.1	162.0	-30.1	
7. LPG	1	98	85	334	739	1,220	1,219
수입증감률(%)	-97.9	10590.6	-13.3	293.9	121.5	65.2	
8. 의약품	614	746	881	1,040	1,014	1,124	510
수입증감률(%)	8.6	21.5	18.1	18.1	-2.5	10.8	
9. 사료	1,832	1,567	422	1,511	1,021	1,044	-788
수입증감률(%)	8.9	-14.5	-73.1	257.9	-32.4	2.3	
10. 기타정밀화학원료	835	875	899	955	1,010	928	93
수입증감률(%)	20.0	4.8	-12.0	6.2	5.8	-8.2	
전체수입액 대비 비율	30.9	33.4	28.8	30.2	34.6	38.9	

자료: 한국무역협회, '17년 3월 5일, MTI 4단위

주: 품목 순위는 2016년 순위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II 한미FTA에 대한 美 언론, 협단체, 언론 반응

◆ 美현지의 정부기관, 경제단체, 연구기관, 언론 등에서도 한미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을 밝힌 바 있음

정부기관

□ (USITC) “한미FTA는 美경제, 교역, 후생, 투자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 제공”(16.6월)

○ 美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USITC)가 발표한 미국의 기체결 FTA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은 美경제,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되었다고 평가

- 2015년 기준, 한미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효과는 157억 달러로 추정*

*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교역수지는 283억 달러 적자이나, FTA가 없었을 시 동 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

-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제품별 공급업자 수도 증가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4.8억불 규모의 관세절감으로 각각 소비자후생 개선에 이바지함

- 미국의 기체결 FTA 중 환경 및 노동 분야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도입

□ (농림부) “직접 확인한 농업 분야의 한미FTA 효과”(16.7월)

○ 美농림부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FTA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한미FTA는 美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발표

- 발효로 인한 대표적 美수혜품목은 치즈, 체리, 자몽, 아몬드, 크렌베리 등임

- 한국은 한미FTA 발효 후, 미국의 제2의 치즈수출국이 되었으며 1인당 美체리 소비량 상위권 국가로 진입하게 됨

협단체

□ (美상공회의소) “한미FTA의 효과, 미국도 수혜”(16.3월)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수출은 매년 5%씩 증가, 서비스수지 흑자는 60억 달러를 기록
 - (발효 전) 美농산물의 90%가 53%의 평균관세율 부과, 기타 상품의 67%가 7%의 평균관세율이 부과되어, 미국은 한국과 FTA를 맺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
 - 문화컨텐츠, 에너지, 금융, 유통 등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 진출의 장벽 존재
 - (발효 후) 對韓수출품의 95%가 비관세 혜택을 받음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문화·예술, 기술 분야 종사자, 서비스산업에 있어 한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짐

□ (헤리티지재단) “한미FTA,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16.8월)

- 미국의 對韓수출은 FTA 발효 후, 매년 5%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11년에서 '15년 사이 200%로 증가
- 한미FTA는 양국 간 경제관계에 있어서 다각화·제도화에 기여하였으며 무역 및 투자 활동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
- 또한 발효 후, 시장접근성 및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강화됨

언론

□ (The Hill) “한미FTA, 수출입 증대 이상의 효과 창출”(16.9월)

-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은 4.7%가 증가한 650억 달러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직접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협력이 강화됨
 - 한국은 미국의 15대 투자국인 동시에, 대미직접투자에 있어 연간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
 - 현대, 기아, 삼성, CJ, 두산 등의 한국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중

Ⅲ 美바이어 · 美수출기업 한미FTA 활용대표사례

< 인터뷰 방법 >

- ◆ 17년 2월 말-3월 초, 美현지 8개 무역관을 통하여 인터뷰
- ◆ 인터뷰 대상기업은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美바이어 및 미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美수출기업으로 선정
- ◆ 대상품목은 1) 관세절감이 있는 품목(양허제외, 무관세 유지 품목은 제외), 2) 일정 규모 이상 (1,000만 달러), 발효 전후 평균적으로 교역액이 증가된 품목 위주로 선정

< 인터뷰 결과 >

- ◆ 美바이어에게 한미FTA는 가격경쟁력 강화,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對韓수입개시, 수요 자체의 증가, 고품질 제품 제공, 세관절차의 간소화, GVC(Global Value Chain) 전략 활용 용이성 등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 美수출기업에게 한미FTA는 新수요를 창출, 전략시장으로서 한국을 활용,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보장 등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인터뷰 과정에서 美기업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품목 스펙트럼을 확대·현지화 할 것을 주문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를 건의함

美바이어

- 美바이어들은 한미FTA의 관세절감 및 제도 선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을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제품에 대한 정보 획득, 수입선 다변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가격경쟁력 강화) 국내 음료제조업체 O사로부터 알로에음료를 수입하는 P사는 발효 후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자, 공격적 마케팅 및 성장전략을 추진, 현재 월마트, Sam's club 등 글로벌 유통체인에 납품 중
 - 특히 관세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에 근거한 활용은 음료, 식품과 같이 가격탄력성이 높은 품목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한미FTA 계기로 기존의 수입선을 변경한 후 가격경쟁력의 이점을 활용, 동종·이종 제품군 모두에서 FTA 수혜품목 위주로 수입품목을 확대

- 코팅장갑을 수입하는 G사는 중국,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선을 변경한 후, 가격경쟁력 우위를 기초로 동일 제품군 내 품목 다변화를 진행하다, 현재는 이중 제품군에서의 품목 수입도 검토 중에 있음
- 목욕용품을 수입하는 L사는 일본, 이태리에서 OEM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던 중, 발효 후 수입선을 변경하여 FTA 수혜품목 위주로 소비재 수입을 확대 중임
- (대한수입개시) LED 조명기기를 수입하는 M사는 한미FTA를 계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 품질 및 스펙에 대해 인지한 후 수입을 개시하여 현재 1,900만 달러 규모로 수입 중
- (수요 자체의 증가) 건면을 수입하는 J사는 대형소매업체들이 관세인하분 만큼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여 수익이 증가한 것은 아니나, 낮아진 소비자가격으로 수요가 창출되어 매출이 연간 10% 증가
- (고품질제품 제공) 배전용보드·패널을 수입하여 美배전대표기업들에게 납품하는 기업 C사는 그간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만을 수입하다, 한미FTA를 통해 고품질의 한국산 제품으로 공급선 변경, 발효 후 110% 수입액이 증가
- (통관절차 간소화) 폴리머가 코팅된 장갑을 수입하는 W사는 한미FTA의 관세 행정 및 무역원활화 규정을 통해 세관 절차가 신속해짐에 따라 발효 전후 수입액이 450% 증가함
- (GVC전략 용이) 미국에서 장갑을 생산하여 폴리머 코팅 작업 수행을 위해 한국으로 수출하고, 코팅작업이 끝난 장갑을 재수입하는 W사는 한미FTA를 통해 對韓수출→對美수입 과정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며, 세관 절차가 신속해짐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됨

美수출기업

- 美수출기업은 관세절감이점을 통한 新수요확대 및 전략시장으로의 선택, 지적권 보호와 같은 선진화된 제도개선을 기초로 한 거점운영 등의 방식을 활용

- **(수요확대)** 체리, 오렌지 등의 과실류 수출기업인 O사는 '97년도부터 동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였으나, FTA를 통해 24%의 고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저가전략이 가능해져 신규 소비자 시장이 확대, 발효 후 수출액 2-3배로 증가
- **(전략시장)** 피스타치오, 아몬드 등의 견과류 수출기업인 W사는 한미FTA 발효 직전을 기점으로 관세이점을 활용하여 韓시장에 진출, 현지용 브랜드를 런칭하고 韓유명가수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MS 선점을 위한 공격적 행보를 진행 중
- **(지재권 보호)** 조제점결제를 수출하는 화학기업 A사는 폴리머 솔루션을 LG, 삼성을 대상으로만 수출하다, 한미FTA로 향상된 지재권 보호를 보장받은 후 생산공장 및 R&D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한국을 아시아 통합 생산플랫폼으로 선택

韓기업 및 對정부 건의내용

- 美바이어, 美수출기업은 한미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제품다양화 및 현지화를 건의
 -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美세관은 현재 한미FTA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어 韓기업의 피해발생건수가 증가 중, 관련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제안
 - **(제품다양화)**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T사는 한 가지 품목이 잘되면 특정품목에 생산, 제조를 집중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국기업의 특성을 제시, 바이어들이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 스펙트럼 확대 노력을 제안
 - **(제품현지화)** 한국산 제품 자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미국 내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제품라인 구성과 현지화된 패키징에 있어 아쉬움을 표명,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노력 및 지원 사업을 제안

별첨1 美바이어 한미FTA 활용사례

1. 동물성제품(16류) : 수산물 가공식품

기업명	T사	연매출액(달러)	34억 달러
취급품목	장어 가공식품류	HS Code	16041710
HS품목명	뱀장어: 밀폐용기		
관세율 변화	4%→1.6%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 발효 전후, 30% 증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 품목 제품 다변화를 모색하던 시기에 한미 FTA 발효로 한국산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됨 - 일본산 수산물도 함께 수입하고 있는데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으로 제품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져 구매에 도움이 됨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한국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매우 까다로워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도 노력해 주기를 바램 - 한국산은 한 가지 품목이 잘 되면 특정 품목(예를 들어 김이 가장 대표적임)으로 생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바이어들이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의 스펙트럼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함 		

2. 곡물조제품(19류) : 가공식품

기업명	J사	연매출액(달러)	102만 달러
취급품목	국수(건면, 생면) 등 가공식품	HS Code	1902300060
HS품목명	기타의 파스타 중 기타		
관세율 변화	6.4%→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비공개 - 발효 이후 연간 10% 증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가 포함된 건면 및 생면(냉면, 우동, 컵국수 등)의 국수 제품은 관세가 6.4%로 부담이 상당하였으나 한미FTA 발효 이후 관세가 0%로 철폐. 한국산 국수 제품 수입 관련 항만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만 부담하고 있음 - 관세가 낮아진 만큼 현지 대형소매업체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여 크게 이득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낮아진 소비자가격으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여 한미FTA 발효 이후 약 15%~30% 가량 주문량이 증가 - 미국의 주요 식품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식품들은 이미 미국에 진출한 농심, 풀무원 등 한국의 대기업으로 한인 교포 시장에서도 한국생산업체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임. 한국 식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중국산 식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식품에 있어 경쟁국은 없다고 볼 수 있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식약청 농림부 및 세관에서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 등록절차 및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또한 미 세관이 한미FTA에 대한 원산지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 원자재 리스트, 원자재 구입 증빙 서류 및 생산 기록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제조사들이 관련 경험 부족으로 서류 준비를 못하고 수입업체들에게 제공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많음 - 한국 생산업체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미 세관 사후 검증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시키는 것이 필요 		

3. 기타조제품(21류) : 소스류

기업명	H사	연매출액(달러)	8,500만 달러
취급품목	소스류, 장류	HS Code	21039090
HS품목명	고추장 등 소스류		
관세율 변화	6.4%→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 발효 전후, 35% 증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유통업계는 가격에 민감한 산업으로 한미FTA를 통한 관세 철폐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줌 - 특히 장류 및 소스류는 6.4%였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제품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관세 혜택이 있는 버섯류와 과일류의 구매도 함께 늘렸음 - 관세 철폐 뿐 만 아니라, 미국의 한식 인기와 더불어 소비자 수요가 증대되는 등 시장이 확대되어 제품 판매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식품류는 한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과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제품이 존재 -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제품 또한 한글로 제품 포장·디자인되어 한국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구분이 어려움 - 한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미FTA를 통한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 특히 미동부지역의 경우, 한국 식품류에 대한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바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더 좋은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제품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상황 - 중국산 대비 한국산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4. 음료, 주류(22류) : 알로에음료

기업명	P사	연매출액(달러)	3,500만 달러
취급품목	알로에음료	HS Code	22021000
HS품목명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는 물, 추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		
관세율 변화	0.2¢/L→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000만 달러→2016년: 3,500만 달러(기업전체매출) - 발효 전후, 250% 증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음료제조업체 O사의 알로에음료 구매 중 - P사는 O사와 2005년 한 컨테이너(약 15,000달러) 거래로 시작해 12년 만에 약 2,000만 달러의 거래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한미FTA 발효를 통해 리터당 0.2센트 수입관세가 무관세가 됨 - 무관세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이 강화 - O사 제품의 시장 진입 초기, 당시 많은 마케팅 및 세일즈 활동 비용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FTA 무관세 혜택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지출이 가능해짐 - 알로에음료 수입을 시작으로 코코넛음료, 요거트음료, 고로세수, 비타민수 등의 제품수입확대로 연결 - 현재 Wholefoods, Trader Joe's, Wal-Mart, Sam's Club 등 글로벌 유통체인에 다양한 한국산 음료 납품 하고 있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관세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바이어 입장에서 가격절감은 크기에 상관없이 중요 - 특히 음료와 같이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는 더욱 그러함 - 한미FTA 재협상으로 인해 양허가 정지될 경우 이러한 가격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 		

5. 화장품(33류) : 목욕용품

기업명	L사	연매출액(달러)	1,000만 달러
취급품목	화장품/개인용품	HS Code	330730
HS품목명	가향한 목욕용품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관세율 변화	5.8% → 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샴푸를 처음으로 수입 - 4만 달러 매출액 발생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자사 브랜드를 주로 운용하는 회사로 특히 일본과 이태리에서 OEM으로 생산하여 미국 내 자체 브랜드를 부착, 판매하고 있었음 - 특히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은 얇은 모발, 민감성 피부, 탈모 등에 효과적인 제품이 많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샴푸 매출이 처음 발생한 이래 꾸준히 증가 중에 있음 - 한미 FTA 효과 및 한류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높아 지고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2012년에는 스킨케어 화장품과 마스크팩 제작을 시작 - 이 후 FTA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사업 품목 구성을 늘려 목욕용품, 개인용품 등을 추가로 한국에서 주문, 제작하여 수입 중임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제품의 다양성 개선 필요 * 미국 내 다인종의 두피, 피부타입을 타겟으로 한 제품구성이 필요 - 한국어를 직역하여 어색하거나 제품설명이 현지화 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므로, 중소기업에 동 부분을 지원하는 것 필요 		

6. 화장품(33류) : 로션

기업명	M사	연매출액(달러)	1억 달러
취급품목	화장품	HS Code	33071010
HS품목명	에프터쉐이빙로션		
관세율 변화	4.9% → 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 전후 15%의 매출액 변화가 있음 - 특히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약 150% 정도 증가하였음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뷰티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품질에 대한 좋은 평가와 함께 미국시장에 한국 뷰티제품 수입물량 증가 중 - 한미FTA로 인한 면세혜택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고 이는 판매량 증가 및 한국제품의 수입 증가 선순환으로 이어짐 - 2012년부터 매년 1백만 달러 이상의 한국 제품을 수입 중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한-미간에 FTA 재협상으로 인하여 현재의 한국산 제품 가격에 변화가 생긴다면 현재 대형유통망을 통해서 구매되는 제품인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제공될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음 		

7. 플라스틱(39류) : 생활용품

기업명	A사	연매출액(달러)	561만 달러
취급품목	플라스틱 주방, 생활용품	HS Code	3924102000
HS품목명	접시와 플래터를 서빙한 판, 컵, 탁반, 탕기, 곡물 사발모양, 사탕그릇, 크림통, 그레이비 보트		
관세율 변화	6.5%→2.6%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비공개 - 발효 이후 꾸준히 한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있음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플라스틱 주방용품에 대한 관세는 6.5%였으나 한미 FTA 발효로 현재 2.6%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매년 10% 내외로 한국산 수입량 증가 추세 - 동 제품은 10년 균등철폐 대상으로 오는 2021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임. 아직 관세에 있어 큰 차이는 없으나 매년 관세가 낮아지고 있어 수입에 대한 부담이 점점 줄고 있음 - 플라스틱 생활용품 외에도 핸드폰 케이스, 안마기, LED Emergency 조명 등 다양한 한국산 제품들을 수입, 취급하고 있으며 한미FTA 활용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국 주요 유통업체들에 납품하고 있음 - 한국 수출업체들이 안전성 테스트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서류 구비에만 약할 뿐, 한국산 제품들은 유해 물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은 편으로 환경 호르몬 검출 등이 낮아 만족도가 높음 - 관련제품에 있어 한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산으로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은 품질 문제가 있음. 그러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상품들은 중국산이 미국 시장에서 선점할 수밖에 없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FTA의 최대 수혜자들은 한국과 이미 거래하고 있던 기존 바이어들로 관세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격 경쟁력 확보와 수익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 대비 월등한 품질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품질 관리가 뛰어나 미국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음 		

8. 편물의류(61류) : 코팅장갑

기업명	G사	연매출액(달러)	1,000만 달러
취급품목	코팅장갑	HS Code	61161000
HS품목명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		
관세율 변화	23.5%→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 발효 전후, 25% 증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는 한미 FTA 체결 이전까지는 코팅장갑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고 있었음 -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등에 비해 내구성 면에서 품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에서 열위에 있어 수입선에서 배제되고 있었음 - 한미FTA 발효로 코팅장갑의 높은 수입관세율이 철폐됨으로써 경쟁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크게 상승함 - 동사는 FTA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을 다변화하여 코팅장갑, 알로에 음료 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플라스틱 봉투 등 소비재 수입을 확대 중에 있음 - 또한 한국산 유기농 식품(미역, 김류 등)의 수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원산지 증명 서류에서 원재료 생산지 등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적시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 입장에서 오히려 미국 정부로부터 수입지연, 관세혜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음 		

9. 편물외류(61류) : 코팅장갑

기업명	W사	연매출액(달러)	6,340만 달러
취급품목	장갑류	HS Code	61161013
HS품목명	장갑류 중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관세율 변화	12.5% → 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발효 전) : 4,568,986 달러 - 2012년 (발효 후) : 6,245,423 달러 - 2014년 : 20,919,360 달러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으로부터 바닥 부위에 고무 폴리머 코팅이 된 장갑을 수입 중 - W사가 한국으로 고무장갑을 보낸 후 한국업체가 폴리머를 칠해 완성품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통해 한미 FTA를 활용하고 있음 - 한미 FTA로 인해 한국→미국 뿐 아니라 미국→한국도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고 세관절차가 신속해짐으로써 한국과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래하고 있는 한국기업 담당자의 영어가 매우 능통하여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한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기업 담당자들의 영어 구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기계(84류) : 기계 · 진공펌프

기업명	S사	연매출액(달러)	1억 2,000만 달러
취급품목	기계, 진공펌프	HS Code	84148090
HS품목명	기계펌프나 진공펌프 · 기계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의 기타		
관세율 변화	3.7%→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 전후 10% 매출액 증가 - 특히 한국산제품 수입 120% 증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 M사의 경우, 과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 몇 년간 지속적으로 동사와 미팅을 하였음 - 하지만 중국 및 다른 경쟁국과의 가격차이가 매우 커서 납품에 어려움이 있었음. 우수한 품질만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없었음 - 한미FTA 이후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 및 경쟁국의 환율변화, 기술력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 등의 효과로 인해 기존 가격보다 약 10%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확보 - 이후 3년간 매년 약 3백만 달러의 제품을 동사에 납품 중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한미FTA 재협상으로 인하여 현재의 한국산 제품 가격에 변화가 생긴다면 경쟁국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매우 불리할 것임 - 특히 중국산의 경우 작년 이후 정부 보조금 등으로 인해 매우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11. 기계(84류) : 공기조절기

기업명	W사	연매출액(달러)	800만 달러
취급품목	공기조절기	HS Code	84158101
HS품목명	공기조절기 중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		
관세율 변화	1.4% → 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발효 전) : 148,084 달러 - 2012년 (발효 후) : 509,549 달러 - 2014년 : 982,258 달러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사는 A사가 2004년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임 - A사는 W사로 완제품을 보내 미국에서 마케팅 및 유통을 함 - 한미 FTA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을 할 때 관세가 줄어듬 - W사는 K사, E사, F사와 같은 주요 국제 브랜드에 제품을 판매하고 Costco, Lowes, Target, Amazon 같은 곳에 W사 브랜드 이름의 제품을 유통하기도 함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 또는 기업 차원에서 비즈니스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한국 공기조절기 바이어들은 가격보다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는 글로벌 트렌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12. 전기제품(85류) : 배전용보드 · 패널

기업명	C사	연매출액(달러)	15억 6,000만 달러
취급품목	전기제품	HS Code	85371030
HS품목명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등과 그 밖의 기반의 기타		
관세율 변화	2.7% → 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 전후 약 22%의 매출액 변화가 있음 - 특히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약 110% 정도 증가하였음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는 미국 배전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에 제품 공급 -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음 - 한국업체인 B사의 기술력이 뛰어나 20년 전부터 거래를 위하여 동사와 접촉하고 있었음 - 전기제품은 가격 경쟁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품질 또한 매우 중요 - 한미FTA를 통하여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품질 좋은 한국 제품 수입물량이 증가하였음 - 매년 약 5백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B사로부터 납품받았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FTA로 인하여 가격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수입 수량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음 - 전기제품 산업의 경우 수입 품목뿐 만 아니라 미국 로컬 제품 과도 경쟁을 해야 하므로 가격 조정이 될 경우 한국 제품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13. 자동차(87류) : 주행용 핸들 부품

기업명	Z사	연매출액(달러)	318억 5,000만 달러
취급품목	주행용 핸들 관련 부품	HS Code	8708940000
HS품목명	컬럼과 스티어링 박스를 조종하는 주행핸들, 이들의 부분품		
관세율 변화	2.5%→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 2011년: 200억 8,000만 달러→2015년: 318억 5,000만 달러 (동사 글로벌 연간 매출액 기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부품은 기존관세율 2.5%에서 즉시 철폐된 품목으로, 바이어가 속한 부서의 경우 한국산 부품 수입 시 약 2백만 달러 이상의 단가 인하 효과를 거두었음 - 자동차 부품에서 납품업체의 가격경쟁력은 Z사의 소싱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 - 한국산 자동차 부품과 함께 보통 고려하는 주요 경쟁국가는 낮은 임금, 미국 시장과의 인접성, NAFTA 세 가지 장점을 가진 멕시코임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美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무역보호주의 정책으로 한국 업체 및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국의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진출을 하지 못한 상태라 현지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그래서 한국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별 물류창고의 존재라고 봄 - 보통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동 사가 요구하는 위탁 재고 (Consignment Stock) 요구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어로서 소싱을 망설이게 됨 - 지역 거점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Logistics, Warehouse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봄 - 분류작업 (Sorting)이나 현지 고객 관리(CS)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 		

14. 자동차(87류) : 브레이크 부품

기업명	F사	연매출액(달러)	74억 2,000만 달러
취급품목	자동차부품: 브레이크 부품	HS Code	87083000
HS품목명	Brakes and servo-brakes; parts thereof		
관세율 변화	2.5%→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 2011년: 69억 1,000만 달러→2015년: 74억 2,000만 달러 (동사 연간 전체 매출액 기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는 한국산 제품이 전반적인 비용과 물류문제 때문에 대안이 아니었음 - 동사는 주로 미국, 일본, 유럽 지역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었음 - 한미FTA 발효 후, 한국산 부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한국 제품은 동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부품업체 선정에 있어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 - 현재 한국업체 1개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납품을 받고 있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에 1) RFQ(견적요청서)를 송부할 때 견적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2) 납품가능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합의된 견적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직성을 매우 중요시 하는 미국 기업 문화에 있어서 소싱을 중단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함 		

15. 자동차(87류) : 센서류

기업명	G사	연매출액(달러)	30억 달러
취급품목	자동차부품: 센서(Sensor)류	HS Code	8708
관세율 변화	2.5%→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 2012년: 29억 달러→2015년: 30억 달러 (동사 글로벌 연간 매출액 기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동 사는 품질은 다소 부족하지만 낮은 단가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서 쓰고 있었음 - 한국산 부품 구매는 한미 FTA전에도 있었으나, 가격 문제로 소싱 기회가 많이 있지는 않았음 - 한미FTA 발효 후,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즉시철폐 되어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게 됨 - 동 사 뿐만 아니라 기타 북미 자동차 현지기업들은 한미 FTA를 활용하여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향후 한국기업의 현지화 및 현지 생산증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산 부품은 품질, 서비스,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품질이 뛰어난 편이나 가격이 중국 등 개발도상국 대비 높다는 특징이 있고, 서비스 면에서는 생각보다 재빠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음 - 한국 기업이 FTA에도 불구하고, 타국 대비 납품단가가 너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단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따라서 품질, 서비스, 가격 세 가지 요소에서 타국 기업 대비 최대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재협상 이슈 이외에도 환율조작국 지정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데 원화가치의 상승은 한국산 부품의 가격 경쟁력 감소를 가져오므로,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 정부의 효과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16. 자동차(87류) : 전자부품

기업명	K사	연매출액(달러)	92억 9,600만 달러
취급품목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HS Code	8708
관세율 변화	2.5%→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 2012년: 81억 9,000만 달러→2015년: 97억 6,000만 달러 (동사 글로벌 연간 매출액 기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는 한국으로부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용도로 자동차 전자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며 최근에는 한국 기업과 자동차 알루미늄 부품 수입 관련 상담을 진행한 바 있음 - '12년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로 보다 저렴한 단가에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게 됨 - 한미 FTA 발효 이전에도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2012년부터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단가 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기존보다 확실히 활발해짐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제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멕시코 등 경쟁국에 비해 긴 해상 물류, 배송기간 및 비용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음 - 향후에는 배송기간·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진출 활성화를 기대함 		

17. 가구(94류) : LED조명기기

기업명	M사	연매출액(달러)	3,471만 달러
취급품목	LED 조명기기	HS Code	9405406000
HS품목명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중 기타		
관세율 변화	6%→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 2014년: 1,000만 달러→2016년: 1,900만 달러 * 2014년 한국산 제품 구매시작, 한국산 구매금액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가 발표되기 전에는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음 - FTA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6%였던 관세가 철폐되어 무관세로 제품 수입이 가능해짐 - 이는 품질과 스펙 외에도 수입가격을 고려해야하는 업체 입장에서 구매 결정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FTA발효 이후 품질이 좋고 스펙이 뛰어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14년부터 정식으로 한국산 LED 조명기기를 수입하게 되었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LED 조명기기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품질과 스펙 면에서 중국산에 비해 뛰어나 제품경쟁력이 있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 하지만 최근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1) 한국산과 비슷한 수준이고, 2) 관세 혜택을 받은 한국산 제품가격 보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 시장점유율을 빼기고 있는 상황 		

18. 완구(95류) : 운동장비

기업명	P사	연매출액(달러)	2억 2,600만 달러
취급품목	Outdoor Fitness Equipment	HS Code	950691
HS품목명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또는 육상경기 제품과 장비, 그것의 부분품 및 부속품		
관세율 변화	4.6%(MFN)→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까지 대한수입 없었음 - 2013년도 93,000 달러 첫 대한수입, 2014년 947,000 달러로 성장 - 2015년도 37,000 달러로 감소 후, 2016년도 341,000 달러로 증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수입이 전무했었던 Playcore사는, 성장하는 Outdoor Fitness Equipment 시장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 개발을 추진하던 중,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된 한국산 제품을 2012년도 NRPA 전시회에서 보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고품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추진하였음 - 전시회 후,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적합성 판단을 내리고, 방한상담을 2회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바이어가 수입을 결정하고 MOU를 작성하여 연간 \$1.0 백만의 수입을 결정 - 2013년 첫 수입에 이어 다음 해에 연간 약 \$1.0 백만 상당의 수입을 추진하였으며,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저가 제품과 차별화를 위해, 한국 제품을 선택하였고, 품질과 거래에 매우 만족하며, FTA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었음 		
한국산제품 및 對정부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NRPA 전시회에서 새롭게 개발된 신제품에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검토 중임 - 향후 지속적인 사업관계와 시장 개척을 통한 거래 증가를 위해, 꾸준한 해외전시회 참가와 신제품 공동개발 등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음 		

별첨2 美수출기업 한미FTA 활용사례

1. 산동물(01류) : 말

기업명	○사	연매출액(달러)	1,100만 달러
취급품목	말(horse)	HS Code	0101
HS품목명	말 · 당나귀 · 노새 · 버새		
관세율 변화	8%→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290만 달러→2016년: 320만 달러 - 2013년: 300만 달러→2014년: 340만 달러 - 2015년: 75마리→2016년: 104마리로 증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부산 경마장 오픈에 앞서 경주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나 한국마사회(KRA) 당시 규정에 따라 한필당 2만 불을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Florida Department of Agriculture(플로리다 농수산부: 플로리다의 농수산물의 보호, 유치, 육성 기관)의 Public auction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품종의 대량 거래가 가능한 ○사를 소개 받음 - 2014년 마사회(KRA) 발표에 따라 말 한 필당 가격과 수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를 통한 수입 경마의 수요가 증가하였음 - FTA 협정 이후 수입경마의 관세가 줄어들어 우수한 품종의 경주마를 수출할 수 있었음 		
향후 對韓시장 진출 및 확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협정이후 수입경마의 관세가 조금씩 줄어들어 2016년 수입 경마에 대한 관세가 전면 폐지되었음.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경주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검토 중 		

2. 과일(8류) : 오렌지

기업명	S사	연매출액(달러)	11억 5,000만 달러
취급품목	오렌지 등	HS Code	080510
HS품목명	오렌지		
관세율 변화	50%→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 연간 평균 10% 이상 증가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렌지는 50%의 높은 관세 장벽이 있었음. 대표적인 오렌지 수출 농가 협회 당사로서는 높은 관세가 한국 내 오렌지 수요를 늘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 - FTA 이후 할당량 내, 정해진 기간(3월~10월) 수출은 무관세로 바뀌는 혜택으로 인하여 높은 관세가 감소되면서 저가 전략이 가능해져 수요가 확대되었음. 특히 감귤류의 비시즌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여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고 판단 - 또한 가격이 낮으므로 기존 구매자가 아닌 신규 소비자의 시험구매가 용이해지고 오렌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추가 구매도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들과 직거래가 가능하여 네이블 등 좋은 품종의 오렌지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음. FTA에 따라 2018년부터 할당량 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오렌지를 더욱 차별화해서 공급할 예정 		
향후 對韓시장 진출 및 확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소비자들은 입맛이 까다롭고 과일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작황에 따라 소비가 많이 좌우됨 - 오렌지 이외에도 새로운 과일을 계속 소개하거나 같은 오렌지라도 새로운 가공품을 선보이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진행 예정 		

3. 과일(8류) : 오렌지 농축액

기업명	F사	연매출액(달러)	3억 5,000만 달러
취급품목	오렌지 농축액, 자몽	HS Code	0805
HS품목명	감귤류와 과실		
관세율 변화	50%(9월~12월), 10%(3월~8월)→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오렌지 농축액	- 2004년: 630만 달러→2014년: 3,900만 달러 (전년 대비 22.1% 성장)	
	자몽	- 2006년: 74만 달러→2014년: 550만 달러 (전년 대비 44% 성장)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FTA를 통하여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있어서 한국산 감귤 보호차원에서 감귤 생산달인 9월~12월 수입 감귤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달에는 10% 부과 수준으로 개방해 오다가 지난 2016년 관세 완전 폐지 - FTA 이전에는 일본이 플로리다에서 자몽 수출 주요 국가였으나 FTA 이후 한국이 아시아 중 자몽 수입 1위국으로 등극 - 한국 A사(본사: 플로리다에 주재)의 새로운 자몽 음료수 출시를 위해 자몽 수입처를 찾는 중 Florida Department of Agriculture(플로리다 농수산부)의 F사에 연락이 닿음 - 플로리다 농수산부 산하 F사는 한국의 A사의 110개 체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몽을 수출 - 2014년 A사를 통하여 자몽음료수 출시 6주 만에 80,000잔 이상을 판매 		
향후 對韓시장 진출 및 확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당시 한국 자몽 시장의 60%를 차지하던 플로리다 자몽이 현재는 93%를 점유하고 있음 - 2017년, 자몽 및 오렌지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서 수출 증가를 기대 중 - 한국에서 다이어트와 건강식품이 주목받으며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몽 외 유기농 제품의 수출 성장도 기대가 큼 		

4. 과일(08류) : 체리 · 오렌지

기업명	O사	연매출액(달러)	220만 달러
취급품목	체리, 오렌지 등 과실류	HS Code	0809290000
HS품목명	신선한 살구, 버찌, 복숭아, 자두, 슬로우의 기타		
관세율 변화	24%→0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비공개 - 발효 이후 매출액 2-3배 증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중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렌지는 '97년부터, 체리는 2000년부터 한국으로 수출함 - 생체리는 한국 수입관세율이 24%에 달했으나 한미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현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한미FTA 발효로 인해 매출 및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혜기업 중 하나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 		
향후 對韓시장 진출 및 확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 및 인근 주에서 재배된 과실 등을 주로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 시점인 4~5년 전에 한국에 지사를 오픈하여 유통망 및 공급 관리를 하고 있음 - 한국 소비시장에서 품질 좋은 신선한 체리로 반응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 철폐로 적절한 소비자 가격에 공급이 가능해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5. 식물조제품(20류) : 견과류

기업명	W사	연매출액(달러)	1,770억 달러
취급품목	피스타치오, 아몬드, 오렌지, 석류	HS Code	2008193020
HS품목명	피스타치오		
관세율 변화	45%→18%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비공개 - 발효 전 수출량: 337톤('10년)→발효 후: 861톤('12년)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도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여 캘리포니아산 견과류와 오렌지, 라임 등을 한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출 시작. 한국시장에서 'A' 브랜드로 진출 - 피스타치오 너트는 기존 관세는 45%이며 한미FTA 발효로 10년 균등 철폐되어 2017년 기준 18%의 관세가 적용. 2019년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 - '13년도에 미국에서 가수 싸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광고 모델로 적극 기용하여 30초 TV 광고를 제작,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에 TV 광고를 방송함(슈퍼볼 광고는 1초당 13만 달러가 소요되는 최고 시청률로 유명) - 한국에서도 싸이를 모델로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 상승 효과를 봄 		
향후 對韓시장 진출 및 확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으로 아몬드 및 오렌지, 석류도 수출하고 있으며 아몬드의 경우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무관세 적용. 오렌지의 경우 계절관세가 적용, 석류의 관세는 10년 균등 철폐 예정임 - 피스타치오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줄어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보고 아몬드와 함께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함. 한국 지사인 'B사'를 통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견과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6. 화학공업품(38류) : 조제점결제

기업명	A사	연매출액(달러)	36억 5,133만 달러
취급품목	화학물질	HS Code	3824
HS품목명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관세율 변화	6.0% → 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발효 전) : 2,362,764,000 달러 - 2012년 (발효 후) : 2,519,154,000 달러 - 2014년 : 2,445,548,000 달러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나 S사와 같은 글로벌 가전제품 업체에서 당사가 생산하는 Polymer Solution을 유통 받아 사용 - 2003년 A사의 유통업체였던 한국의 T사를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A사 제품의 한국 내 판매는 연평균 약 20% 증가 - 한국으로부터 원자재와 기초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한국에 Polymer Solution을 수출하는 비즈니스 구조 - 2010년 여수에 R&D 연구실 및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2012년 이를 확장 -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없으나 한미 FTA로 인해 향상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향후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향후 對韓시장 진출 및 확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폴리올레핀, 메탈로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수공장의 이러한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7. IT 소비재

기업명	M사	연매출액(달러)	2,500만 달러
취급품목	모니터 등 IT 제품 포함 소비재	HS Code	852871
HS품목명	영상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관세율 변화	3.9%→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IT 가전 등 포함 전체 기준 200만 달러 - '11년 1,100만 달러, '13년 2,000만 달러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는 모니터, TV, 프로젝터 등 IT 제품을 포함, 다양한 IT 소비재와 일반 소비재를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여 한국에 인터넷 쇼핑몰에 공급하는 업체임 - 2010년 사업 초기에는 관세와 중국산 대비 가격 격차가 커서 한국 바이어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음 - 특히 바이어들은 미국 제품은 비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했음 - 한미 FTA 발표 이후 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비교적 가격이 높았던 TV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등 미국 내 다양한 할인 이벤트에 한국 소비자들도 적극 참여하면서 매출량이 더욱 증가하여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매출 상승을 보임 - 현재는 바이어들이 운송비를 제외하고 나면 가격차이가 품질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을 소개하기 한결 용이 		
향후 對韓시장 진출 및 확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들은 관세 뿐 만 아니라 배송비 등 비용과 절차에 매우 민감하므로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 한국 소비자 취향에 맞는 IT 소비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소개하여 시장을 확대시킬 계획 - IT 뿐만 아니라 미국산 아웃도어 제품이나 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들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 		

8. 전기제품(85류) : 절연용품

기업명	M사	연매출액(달러)	5억 2,388만 달러
취급품목	절연용품	HS Code	85471000
HS품목명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관세율 변화	2.7% → 0%		
발효 전후, 매출액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발효 전) : 70,356,700 달러 - 2012년 (발효 후) : 74,291,315 달러 - 2014년 : 79,573,428 달러 		
한미FTA 활용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한국에 A사를 설립하였고 2002년 B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 한국에 절연 벽돌, 담요를 수출하는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 중인 관계로 수출입 양 측면에서 한미 FTA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 - M사는 F사의 아시아 최대 생산기지이자 유통기지임 - NICE 평가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5년 기준 2년 연속 성장 우수기업, 2년 연속 자본금 우수기업, 6년 연속 흑자기업에 선정되었으며 향후에도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 		
향후 對韓시장 진출 및 확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크고 중요한 시장이 되었으며 글로벌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 - M사의 고용인원은 약 75명이며 다양한 품목을 생산 중 		



작성자

- ◆ 뉴욕무역관 김수연 과장
- ◆ LA무역관 최정아 차장
- ◆ 시카고무역관 강준경 과장
- ◆ 달라스무역관 이성은 사원
-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조사관
- ◆ 실리콘밸리무역관 윤이진 과장
- ◆ 디트로이트무역관 원동호 과장
- ◆ 마이애미무역관 이해진 조사관
- ◆ FTA지원팀 김미옥 전문위원
- ◆ FTA지원팀 박영훈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7-011

미국이 바라본 한미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7년 3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FTA지원팀
(02-3460-3388)

ISBN : 979-11-6097-209-2 (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미국이 바라본 한미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Global Market Report